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 금상

지역활성화형 프로그램 부문, 시민기획프로그램 등 호평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한국지부가 주최한 '2025년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지역활성화형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는 한국·아시아 축제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한국·아시아·세계대회를 이어지는 경쟁체제를 운영하는 축제 전문 기관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사체계를 갖추고 있다.

올해 총장축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열렸다. 금남로·충장로·예술의 거리·5·18 민주광장 등 동구 전역에서 펼쳐졌으며, 총 4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개막의 날·아시아 문

화의 날·가족의 날·행진의 날 등 일차별 테마 운영, 퍼레이드, 주먹밥 콘테스트, 청년기획단 '짚이' 프로그램, 시민 공모 기반의 시민 기획 프로그램 등 주민·상인·청년·아시아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다층적 참여 구조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상권 연계, 주민 주도형 행정동 퍼레이드(13개 행정동·2천여 명 참여), 사회적경제 및 청년 창업자와 함께한 '총장 장터', 아시아 커뮤니티가 참여한 아시아 문화의 날 등은 경제·문화 파급효과를 극대화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주먹밥 콘테스트'는 광주의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대 간 화합과 지역 정체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금상은 주민·상



인·청년·예술인·아시아 커뮤니티가 함께 만든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의 이야기가 콘텐트가 되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올해부터 '추억' 브랜드를

기반으로 주민 설문-축제위원회 논의-현장 투표-폐막식 발표에 이르는 새로운 차년도 주제 선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과정을 통해 2026년 축제 주제를 '추억의 노래'로 확정했으며, 폐막 드문쇼에서 이를 공개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대촌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축구장 조성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조건부 사업 승인을 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축구장 건립을 본격화한다.

남구는 3일 "빛고를 농촌테마파크 인근에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다섯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정부 요구 사항을 반영한 축구장 조성 계획안이 최종 과정을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의를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 대상 부지 해제를 위해 조정 계획 수립부터 주민 의견 수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광주 남구, 국토부 승인 '대촌동 축구장' 본격화 다양한 행사 연계 '복합 문화 거점' 조성

사건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이달부터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추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부터 축구장 착공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축구장 이용자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44면으로 조성하고, 고정식 관중석 설치 계획도 변경해 이동식 관중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구장 이용 대상자 범위도 대촌 주민들을 비롯해 관내 주민 전체로 확대하고, 축구장 인근에 있는 빛고를 농촌테마공원과 향후 조성되는 야영장 시설과 연계해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 문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대촌동 축구장은 운동 시설 기능과 함께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는 생활형 놀이 공간이 될 것이다"면서 "축구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관내 주



민들이 청정지역에서 여가 활동 및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촌동 축구장 부지 면적은 9,862㎡ 크기이며, 축구장 1면을 비롯해 주차장과 화장실, 세면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채일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원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광주지역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생태독성 조사 결과, 모든 조사지점에서 생태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생태독성 조사'는 기존의 물리·화학적 수질 분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미지의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독성 물질에 민감한 물벼룩(Daphnia)을 이용한 급성독성시험을 적

광주시 "주요 하천 수생태계 건강하다"

보건환경연구원, 3년간 주요 하천 월 1회 생태독성 조사

용해 수생태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조사 방법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원은 2023~2024년 평촌교, 풍영정천, 평동천, 대촌천 등 12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총 144건의 생태독성 시험을 실시해 모든 시험에서

(AI)·모빌리티 산업과 우주항공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해 동반상승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기관과 기업, 학생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술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앞으로 인공지능(AI)과 모빌

'독성 영향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에는 광주전 5개 지점(교동교·방학교·광천1교·광운교·동천교)과 풍영정천 2개 지점(풍영정천·도촌교) 등 총 7개 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조사를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실시한 모든 조사에서 생태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3년간 조사에서 생태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광주 주요 하천의 수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광주시는 이 위성 임무를 통해 수집된 핵심 자료를 활용, 인공지능 모빌리티(AAM, 자율주행 등) 차세대 이동체 기술의 환경 예측과 운행 최적화 모델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역의 인공지능

리티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평가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태조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위성이 선정된 것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이 우주항공산업과 연

계해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며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정밀 내비게이션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공적인 우주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환관 기자

북구, 존스홉킨스대 수석교수 초청 AI 특별강연

8일 알하산 야신 수석교수 초청 AI 특별강연 개최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8일 오후 3시 북구 문화센터에서 알하산 야신 존스홉킨스대 수석교수 초청 AI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광주 sovereign(소버린) AI, 우리가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AI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관련 분야를 주도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알하산 야신 교수는 NASA의 협력 리더를 맡아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 중인 AI 및 미래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야신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광주 소버린 AI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AI 기술의 지역 산업·행정 분야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조 강연(성균관대 박정수 교수) ▲특별강연(알하산 야신 교수) ▲참석자들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분야 기업, 청년, 주민 등 300여 명이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구는 이번 강연이 미래 기술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주민들의 일상과 산업 현장 등에서 AI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연을 수강하고 싶은 주민은 오는 5일까지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



항을 참고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생경제과(☎062-410-8477)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AI 기술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 기관, 연구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북구가 AI 기반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지역 내 AI 가치 확산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총 8회에 걸쳐 인공지능 특강을 개최한 바 있으며 ▲AI 매치업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금 지원 ▲온디바이스AI 지원사업 ▲AI 기업 실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서구, 가로등 유지관리 '3년 연속' 최우수

5개 자치구 중 1위... 지리정보 기반 민원처리 높이 평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광주광역시 주관한 '2025년도 도로조명 유지관리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 점검 ▲도로조명 통합 관제시스템 운용 ▲보조사업 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결정됐다.

서구는 가로등 1만1751등에 대해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미달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안전한 야간 도로환

경 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서구는 ▲야간 밝기 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관내 가로등의 97%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한 점과 ▲가로등 GIS(지리정보) 기반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민원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도로조명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